

복음과 율법 8장. 왜 죄를 짓는가?

오늘은 현실적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게 되었으며,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죄가 주장할 수 없게 된 신자가 왜 죄를 짓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강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유교적 영향과 결합하여 자신은 완벽한 척하는 위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 대하여 죽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보니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이 틀림없어!” 라고 단정합니다.

어떤 경우든 이 두 경우는 복음의 풍성을 놓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후,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죄를 짓는 현실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롬6:11-14)

보시면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한 말씀 앞,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고 권고합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모순도, 대립도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자면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는 말씀은 ‘명령’ 입니다. 그러나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말씀은 ‘직설법’ 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시죠? ‘명령’ 은 ‘율법의 언어’ 이고, ‘직설법’ 은 ‘복음의 언어’ 입니다.

그렇다면 어제까지 설명한 내용과 연결해보십시오.

첫째, ‘복음’ 은 ‘그가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두 주셨다’ 는 것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린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에 대해 산자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신분과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 자신을 주장하거나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둘째, 그러나 신자의 ‘몸’ 은 죄가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구원받은 자임에도 죄에 대한 실패가 있느냐? 할 때에 여기서 ‘몸’ 의 문제가 있음을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 육체 자체가 악하다는 영지주의적 오해를 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 설명은 또 하나의 주제로 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다만 우리가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 체로 입을 때까지는 ‘몸’ 이 가진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고 하지 않고 “죄가 너희 죽을 ‘몸’ 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고 한 내용을 깊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 자신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정체성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 입니다. 이것은 순종할 ‘명령’ 이 아니라 ‘직설법’ 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실’ 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현실은 신자는 여전히 이 땅에서 썩어질 몸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12절에 ‘죽을 몸’ 이라고 한 것이며 앞선 6절에서는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에서 등장하는 ‘죄의 몸’ 이라고 말하기 합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선 이해할 우선 ‘옛 사람’ 부터 정리합니다. ‘옛 사람’ 은 뭘까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옛 사람’ 은 죄성, 육체적 본성, 정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께서 얘기하는 ‘옛 사람’ 은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인의 상태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아니라 첫 사람 아담과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자연인은 다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에 연합이란 영적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음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룬 모든 것이 ‘전가’ 되어 부활 생명, 그러니까 부활 후에 예수님처럼 죄와 율법의 정죄가 아닌 신분과 영광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근본적으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옛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의 나’ 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 이 되었다고 합니다.

*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

다시 돌아가 그렇다면 왜 나는 현실적으로 죄 속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은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하여 죄의 몸은 죽어야 할 것, 다시 말하면 죄의 몸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옛 사람이 죽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몸’ 에 대해 존 스토틈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에 의해 제한되고 통제 받는 우리의 몸” 이라 했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현재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거하는 죄” 라고 설명했는데 신자는 옛 사람이 죽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자는 죄의 영향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은 몸을 입고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설명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신자가 죄를 짓는 이유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자면 존 스토틈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죄는 우리의 자연적 본능을 왜곡시키고, 줄림을 게으름으로, 배고픔을 탐욕으로, 성적 욕구를 육욕으로 격하

시켜서 우리의 몸을 악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게 한다” 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영지주의처럼 몸 자체나, 몸의 본능을 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 몸의 본능을 정욕과 사욕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 “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자면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몸은 아직 죄의 영향에서 완전하게 구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의 속량을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신자는 죄와 싸우면서 언젠가 최종적 구원이 임할 때 몸의 속량이 될 것인데 그 시간을 기다리며 사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죄뿐만 아니라 고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 존 스토틀의 얘기로 이해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현재 당하고 있는 교회의 고난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박해가 아니라 우리가 반쯤 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직 온전히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속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계속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반쯤 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 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 신앙에 대한 이해에 대해 아주 강조했던 것이 있다면 그건 ‘이미’ 와 ‘아직’ 으로 우린 ‘이미’ 와 ‘아직’ 사이에 살기 때문에 마지막 역사의 완성이 있을 때, 그때 우리 몸도 영화롭게 변하겠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몸은 죄의 유혹에 노출될 때 유혹을 받아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패와 낙심을 헤맬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럴 때 신자가 내뱉는 탄식은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사는 신자의 탄식에 대해 “2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3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5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시니라 6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으로라 8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고후 5:2-8)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성공하고, 행복해도 그것으로 채울 수 없을 겁니다. 그럴 때는 내 안에 결핍을 통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또 반대로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로마서 8: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찌니라” 고 하신 대로 살아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는 명령을 율법의 명분이나 강박이 아니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운명을 갖고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싸워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죄에 대해 싸워 이겨야 구원이 있고 지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 능력으로 승리하신 예수님께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죄의 실체를 알고 죄와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1. 죄에 대해 죽은 신자가 왜 죄를 짓는가? 정리해보십시오.

- 신자가 죄의 몸(죽을 몸)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음

2. 죄의 몸과 옛 사람은 같은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 정리해보십시오.

- 옛 사람: 그리스도를 믿기 전, 회심 이전에 아담과 연합된 것으로 율법 아래 있던 사람
-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이 못 박혀 죽음

3. 옛 사람이 죽었음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는?

-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죽을 몸(죄의 몸)에 잔존하는 죄성 때문에 죄를 지음 → 그러나 신자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음(롬 8:23)
- 구원받은 영혼 + 부활하게 될 몸 → 구원의 완성

4. 죄는 새 사람이란 존재 자체에 있지 않고 죄의 몸(죽을 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롬 6:12)

- 신자=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고후 5:17)
- 새 사람이지만 여전히 죄가 남아 있는 신자의 몸 : 죄의 몸, 죽을 몸
- 죄의 몸(죽을 몸)을 입고 있기에 여전히 죄의 유혹과 죄를 짓습니다.

5.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분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데 우리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신자만이 십자가에서 부활 능력으로 승리하신 예수님께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죄의 실체를 알고 죄와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